

세울 수 있지 않을까 한다.

善德女王的 時代

—瞻星臺 論爭에 덧붙여서—

慶北大 史學科 李 基 東

지난 십수년 동안에 걸쳐 瞻星臺만큼이나 큰 論爭을 불러 일으킨 것은 科學史 분야에서는 물론 일반 학술투문에서도 없었던 일이라고 생각된다. 처음 科學史家들 사이에서 조심스럽게 논의되던 이 문제는 전후 세차례에 걸친 熱氣 討論會를 통하여 韓國科學史에 흥미를 갖고 있던 일부 역사가들이나, 考古學者 혹은 土木工學者, 建築家들까지가 개입, 동원되는 결과를 초래하여 문자 그대로 百家爭鳴의 觀을 노출하고 말았다. 這間에 제출된 假說들을 모은다면 韓 國의 研究史가 꾸며질 정도라고 하니 그 論爭의 富盛함을 짐작할 수 있다. 이제 瞻星臺 문제에 관한 한, 더 이상 新說이 나올 여지는 없는 것 같다. 本 小論은 이 難解한 문제에 뛰어들 생각에서 작성된 것이 아니다. 다만 新羅史를 專攻하는 한 歷史學徒의 입장에서 瞻星臺가 만들어진 善德女王 당시의 일반 정세에 대해 一瞥하고, 이 같은 시대상황에서 나올 수 있는 築造物은 과연 어떤 성격을 띠는 것인가라는 일반적인 의문에 답하기 위해 씌어진 것에 불과하다.

다 아는 바와 같이 瞻星臺 築造에 대한 最古의 기록은 「三國遺事」이다. 즉 同 紀異篇 “善德王知幾三事”條에는 「別記」를 인용하여, 이 王 때에 돌을 다듬어 瞻星臺를 쌓았다고 되어 있다. 이처럼 瞻星臺는 善德女王 때에 만들어진 것으로 알려져 있을 뿐, 정확히 언제 만들어진 것인지 알 수 없다. 물론 「增補 文獻備考」象緯考(2) 儀象條에는 同 女王16年 (647)에 이를 만들었다고 하였으나, 이는 그대로 믿기 어렵다. 古代 史書에는 어떤 事物, 事件의 確信한 연대를 알 수 없을 경우 해당되는 王 本紀(혹은 世家) 기사의 끝에 이를 기록하는 경향이 있는데, 아마도 「增補 文獻備考」의 撰者는 이같은 用法에 따른 것 같다. 한편 「世宗實錄 地理誌」慶州府條에는 瞻星臺의 築成 연대를 貞觀 7年 癸巳(633)라 하였으나, 이 또한 그대로 믿기 어려운 것이다. 이 해는 善德女王이 即位한 이듬

해에 해당하는데, 踰年稱元法에 따른다면 이는 同 女王의 即位 元年이 된다. 물론 高麗時代에 나온 「三國史記」는 即位年稱元法에 따라 本紀를 기록했기 때문에 이 해는 同 女王의 2년이 되지만, 그러나 朝鮮時代에는 高麗時代와는 달리 踰年稱元法이 채택된 시대임으로 해서 同 撰者는 瞻星臺의 築成연대를 善德女王의 治世가 시작되는 元年에 배치시킨 것이 분명하다. 어떻게 瞻星臺가 築成된 정확한 연대는 알 수 없지만, 그것이 善德女王 때에 기록된 것만은 의심할 바 없다고 생각된다.

善德女王(632-647) 시대 15년 간은 한마디로 말해서 國難期였다. 新羅는 560년대에 급격한 영토팽창을 이룩한 이래 失地回復을 꿈꾸는 百濟, 高句麗 兩國으로부터 끊임없이 兩面 공격을 받게 되었는데, 善德女王 시대 특히 642년부터 同 女王이 죽을 때까지는 兩國의 武力侵攻이 한층 강화된 시기였다. 그리하여 新羅는 이 기간중 일종 국가적 危機에 몰리게 되었다. 그것은 642년 高句麗에 政變이 일어나 對外強硬策을 주장하는 淵蓋蘇文이 집권하고, 또한 百濟에서도 義慈王이 即位하여 兩國은 新羅 공격에 있어 共同步調를 취했기 때문이다. 이것은 전에 없던 새로운 현상이었다. 특히 百濟는 642년 여름과 가을에 걸쳐 小白山脈을 넘어 陝川 방면으로 진출하여 新羅의 40여 城을 빼앗았을 뿐 아니라 新羅의 西部 방어의 일대 據点이던 大耶城(陝川)을 함락시켜 城主 이하 軍官民을 학살하였다. 이로써 新羅의 서부 방어선은 慶山 방면으로 후퇴하지 않을 수 없었는데, 이는 首都인 慶州의 안전을 위협하기에 충분하였다. 新羅는 善德女王이 죽을 때까지 百濟에 빼앗긴 지역을 收復하지 못하였다.

한편, 이 같은 對外的인 危機 속에서 國內의 支配체제도 동요하였는데, 그 직접적인 發端이 된 것은 唐太宗의 新羅에 대한 監國 제안이었다. 즉 新羅는 百濟, 高句麗 兩國의 침략이 강화되자 唐에 대하여 군사원조를 요청하였는데, 이에 대해 唐太宗은 643년 9월 新羅使臣에게 女王 統治의 문제점을 지적, 唐의 皇族 중에서 한 사람을 보내어 新羅의 國王으로 삼는 방법을 생각해 보도록 제안하였다. 비록 이 제안은 唐太宗이 제시한 세가지 計策 중의 하나에 불과했으나, 이것이 新羅 朝野에 던진 충격은 매우 심

작한 것이었다. 그 결과 645년 11월 權成있는 貴族會議 의장인 上大等 직에 취임한 毗曇은 647년 正月 女王이 統治를 잘못한다는 구실을 들어 반란을 일으키기까지 했는데, 당시의 정세로 보아 貴族會議에서는 女王의 廢位를 결의한 듯하며, 이 결정이 관철되지 않자 毗曇 등 일부 귀족들이 반란을 일으킨 것으로 보여진다. 이 반란은 이해 正月 17일 慶山 방면군 사령관인 金庚信에 의해 진압되었지만, 善德女王은 이보다 앞서 이달 8일에 죽었다. 결국 여왕은 내란의 소용돌이 속에서 急死한 것이었다.

이처럼 국내의적으로 다사다난한 때에 善德女王은 어떻게 이에 대처하였는가? 軍備가 증강되고, 唐의 군사원조를 얻기 위한 外交工作이 본격화되었음은 물론이다. 그러나 이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長期전쟁에 지친 국민들에게 必勝의 신념을 注入하기 위한 일련의 조치였다. 護國巨利인 皇龍寺에 九層塔을 세운 것은 이 같은 관점에서 주목되는 사실이다. 이 塔은 唐에서 佛法을 공부하던 慈藏이 조국의 위기를 걱정한 나머지 643년 3월 급거 귀국, 善德女王에게 造塔을 건의한 결과 645년 3월에 이룩된 것이었는데, 이 造塔의 緣起說話에 따르면 慈藏이 中國에서 공부할 때 만난 神人에게 무엇을 하면 나라에 利로움이 되겠느냐는 물음에 『본국에 돌아가 皇龍寺에 九層塔을 이룩하면 이웃나라들이 降伏하고 九韓이 來貢하고 王祚가 길이 平安하리라.』 대답한 데 起因하여 造塔을 건의한 것이라 한다. 대외적인 위기상황에 대처하는 이같은 방식은 비단 善德女王 때에만 限하는 것은 아니었다. 新羅가 唐의 힘을 빌어 百濟, 高句麗를 멸망시킨 뒤에 다시 唐을 韓半島에서 몰아내기 위해 唐과 힘겨운 生存戰爭을 벌였던 670년대에도 新羅는 四天王寺를 창건하고 이곳에서 文豆婁(mundra)라고 불리우는 密敎式의 大法會를 개최하여 唐軍 退治를 꾀했던 것이다. 慈藏의 조카인 僧 明朗은 이 秘法을 써서 風浪을 일으켜 唐軍을 潰滅시켰다고 한다. 新羅가 不可抗力의 대외위기 속에서 현실 구제를 목적으로 九層塔을 만든다거나 혹은 佛敎道場에서 密敎의 秘法을 행한 것은 善德女王代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眼目이 된다고 믿는다.

『三国史記』와 『三国遺事』의 관계기록에 의하

면 善德女王 자신 靈의인 능력이 뛰어난 인물이었다. 『三国史記』 同 王本紀와 『三国遺事』 “善德王知幾三事” 條를 보면 同 女王은 두꺼비와 개구리가 떼를 지어 官城 부근의 玉門池로 모여들었다는 臣下의 얘기를 듣고, 이는 필시 百濟軍이 慶州 서남쪽의 한 계곡에 잠입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이같은 판단은 合理主義의인 정신에서 나온 것은 결코 아니며 오히려 靈의·呪術의인 능력에 起因하는 것임이 분명하다. 또한 同 女王이 卽位 5년(636) 3월 병이 들어서 医員을 불러 藥을 쓰고 기도를 해도 효력이 없자 皇龍寺에 百高坐를 베풀어 중들로 하여금 仁王經을 講讀케 했다는 것은 善德女王의 個性과 그 시대의 일반風潮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善德女王 때에 이루어진 군사, 외교 이외의 諸般 사항은 皇龍寺 九層塔 造塔에서 보이는 것과 같은 祈願的·呪術的·象徵的인 의미를 띠는 것으로 보아 큰 잘못은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점은 瞻星臺도 그 例外가 될 수는 없을 것이며, 실로 이같은 時代風潮의 脈絡 속에서 이해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瞻星臺가 天文觀測臺라는 종래의 通說에 대해 그 구조상 이를 종교적인 어떤 象徵物이거나 혹은 醮祭壇으로 볼 수 있다는 설은 이 점 參考할 만한 견해인 것이다. 군사적으로 다사다난한 善德女王 때에 新羅가 단순히 天文觀測만을 목적으로 하여 어떤 施設物을 만들었을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 되풀이하거나와 당시 新羅人의 현실문제에 대처하는 방식은 실제적·합리적이라기보다는 오히려 祈願的·呪術的인 면이 강하였다. 그러나 한편 이같은 推論이 瞻星臺의 天文臺로서의 성격을 否認하는 것이 되지 못함은 도대체 당시의 天文学이라는 것이 근본에 있어 道敎的인 雜術인 方術과 神秘哲學的인 占星術과 不可分의 관계에 있었기 때문이다. 金庚信의 後孫인 金敏은 8세기 후반에 司天大博士를 역임하였거나와, 그의 行蹟이 告天, 祈祝이나 災變의 禳除 같은 일에 긴밀히 관련되고 있는 것은 그 움직일 수 없는 證左라 할 것이다.